

위대한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

2010년 2월 26일 오후 1~2시 사이에 SBS 생중계를 통하여 캐나다 밴쿠버 피시픽 콜리시엄의 링크에서 펼쳐진 환상적(fantastic)이고 위대한(great) 피겨스케이팅 연기를 보았다. 이 연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인 김연아(金妍兒: 1990년 9월 5일생, 간단히, 연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연아는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역대 최고성적인 총점 228.56점(쇼트 78.50[세계신], 프리 150.06[세계신])을 얻어 작년에 세웠던 자신의 세계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 위대한 연기를 시청하면서 필자는 트리플 러츠(triple lutz)-트리플 토 루프(triple toe loop)-더블 루프(double loop) 콤비네이션, 트리플 플립(triple flip), 더블 악셀(double axel) 점프 등 생소한 스포츠 전문용어를 어렵듯이 알게 되었고 배경음악인 조지 거슈윈(George Gershwin, 1898-1937)의 『피아노 협주곡 F 장조 (Piano Concerto in F)』(1925)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AP 통신은 “김연아는 거슈윈의 『피아노 협주곡 F 장조』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표현했다. 이 대사건은 올림픽 금메달 획득 이상의 것이다. 연아의 이 연기는 피겨스케이팅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필자는 이 감동적이고 위대한 연기를 직접 생중계로 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피겨스케이터가 탄생되었는지 나름대로 진단하고 생각하여 보았다. 연아는 피겨스케이팅에 적합한 체형과 스케이팅 재능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연아는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려야 함) 완벽함을 추구하는 노력과였다. 게다가 어머니(박미희)의 집념과 희생이 연아를 위대한 선수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연아 옆을 지키며 마음 자세가 흔들려 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춘기 때는 고된 훈련으로 인해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가 심할 정도로 수없이 싸웠다고 한다. 연아의 말대로 그녀의 어머니는 그 당시에는 적이었다. 연아는 10대에 다른 일반 학생들처럼 친구들과하고 함께 지내지도 못하는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그녀의 목표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아갔다 (어느 것이 나은 삶이라고 단언하기 힘들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인의 꾸준한 노력과 강인한 인내심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희생, 대한빙상 경기연맹, 훌륭한 코치인 브라이언 오서(Brian Orser ; 1961-), 안무 코치 데이비드 윌슨(David Wilson)의 도움으로 이 위업을 달성하였다. 필자는 위대한 피겨스케이터 선수 연아를 탄생시키는데 코치 오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연아가 주니어 챔피언 시절인 2006년 5월에 윌슨 코치로부터 새 안무를 받기 위해 캐나다 토론토를 갔는데, 그녀는 거기서 우연히 코치 오서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후 연아의 어머니와 대한빙상 경기연맹은 오서 코치에게 3주간 트리플 악셀 점프(앞으로 뛰어올라 3.5회전해야 하는 기술)를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 오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 주니어로는 첫 번째 트리플 악셀에 성공을 거둬 “미스터 트리플 악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1980년대 남자 피겨스케이팅을 평정했던 오서는 유독 올림픽 금메달과는 인연이 없었다 (1984년 사라예보,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서 각각 은메달을 땀). 그는 단번에 연아의 재능과 끈기를 알아보았다. 그는 최근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연아는 바위 속의 다이아몬드였다. 나는 바위를 부수고 다이아몬드를 찾아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두 번이나 올림픽에 출전한 경험이 있어 중요한 경기 전에 최상급의 선수의 심리 상태를 누구보다도 (연아 어머니보다도 심지어는 연아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서 연아에게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연아는 중압감을 이겨 낼 수 있었다. 오서는

출전 몇 주 전부터는 가능하면 부모 가족들이 연아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내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아무리 출전 경험이 많다 해도 19살의 어린 나이에다가 인간인지라 올림픽이란 큰 시합에서 연아의 부담감과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생각한다. 연아는 연기가 시작된 지 8초 후에야 완전한 안정감을 찾고 무아지경에 빠져 위대한 연기를 펼쳤다. 또한 일본의 아사다 마오(淺田 眞央: 1990년 9월 25일생) 바로 앞에 연기를 하였던 것도 연아에게는 큰 운이었다. 마오는 연아의 위대한 연기에 주눅이 들어 가벼운 실수를 저지르며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마오도 뛰어난 선수이다. 연아보다는 실력이 떨어지지만, 하여튼 어제 연아의 위대한 피겨스케이팅 연기를 생중계로 시청하였다는 것만도 기쁘고 감회가 깊다.

위대한 피겨스케이터의 탄생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과학,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도 조만간 획기적인 도약의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아시다시피 세계 프로 골프에서도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큰 활약을 하고 있다. 골프와 피겨스케이팅 스포츠는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기가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위대한 피겨스케이터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연아키드(Yu-Na Kid)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즐기면서 완벽한 스케이팅을 하는 연아의 연기를 즐겁게 감상하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수학분야로 돌아가 보자. 2014년 8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ICM (세계 수학자 대회)을 작년에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 수학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위대한 대한민국 수학자는 탄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경제 분야에서도 위대한 학자가 탄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학자가 될 잠재력을 지닌 10대들은 많은데 교육제도(특히, 대학입시제도)의 부실과 훌륭한 학문적인 지도자의 부족으로 가까운 미래에 위대한 과학자와 경제학자의 탄생을 보지는 못할 것 같다. 필자도 두 자녀를 국내에서 대학을 보냈지만 자녀 본인뿐만 아니라 친척 온 가족이 대학입시로 상당한 고통을 이겨내어야 했다. 최근에 보도된 뿌리깊은 교육비리를 접하면 답답하고 비분강개할 뿐이다. 이번 기회에 교육비리를 완전히 척결하고, 사교육을 지향하여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는 열정적이고 실력이 있는 교사들을 많이 양성하여 창의적인 공교육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10대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즐겁고 창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연아처럼 힘들더라도 목표를 향해 즐겁게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위대한 과학자가 탄생되어 노벨상도 자연스럽게 수상하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10대, 20대의 쾌속세대들이 세계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이다.

끝으로 동계올림픽에서 선전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젊은 모든 선수들과 임원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보낸다. 특히 어제 위대함의 개념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기회를 준 연아에게 큰 고마움을 보낸다.

양재현

2010년 2월 27일

